



BYN BLACKYAK

SUSTAINABLE STRATEGY FOR
COEXISTENCE

BASECAMP IN YOUR NEW LIFE, BYN

본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주)BYN블랙야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로 5가의 등산용품 전문점 '동진사' 사업 시작(1973)
- 미국의 GORE 社와 고어텍스 제품 생산 판매 라이선스 계약 (1994)
- BLACKYAK 독일 뮌헨 지사 설립 (2014)
- 스위스의 연구/개발 회사 DNS(Development Never Stops) 인수 (2019)
- 대한민국 페트병 재활용 패션 국내 최초 시장화 성공 (2020.7)
- BYN블랙야크그룹 'UN국제친환경인증' GRP 최우수등급 획득 (2021)
- 글로벌 스포츠·아웃도어 박람회 <ISPO> 29개 제품상 수상 (~2023)
- 회원수 51만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BLACK YAK ALPINE CLUB (~2024)



BLACKYAK®
KIDS

nbu



1973

2024

OUR MISSION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이 시대의 핵심가치는 '공존'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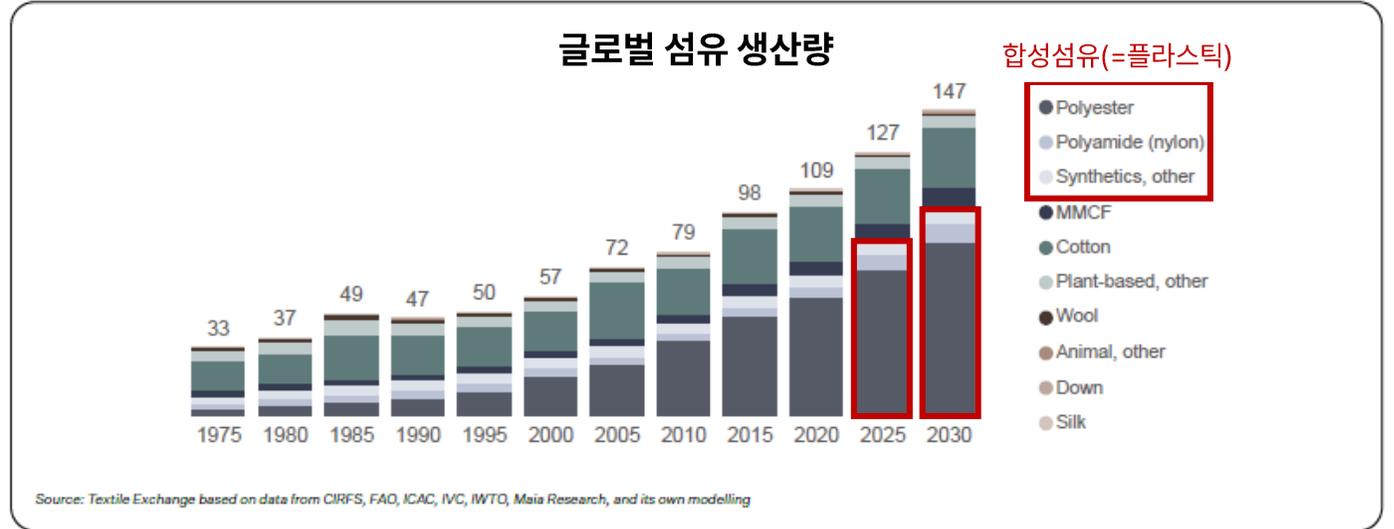
<사진 출처: AFP 연합뉴스>



<사진 출처: 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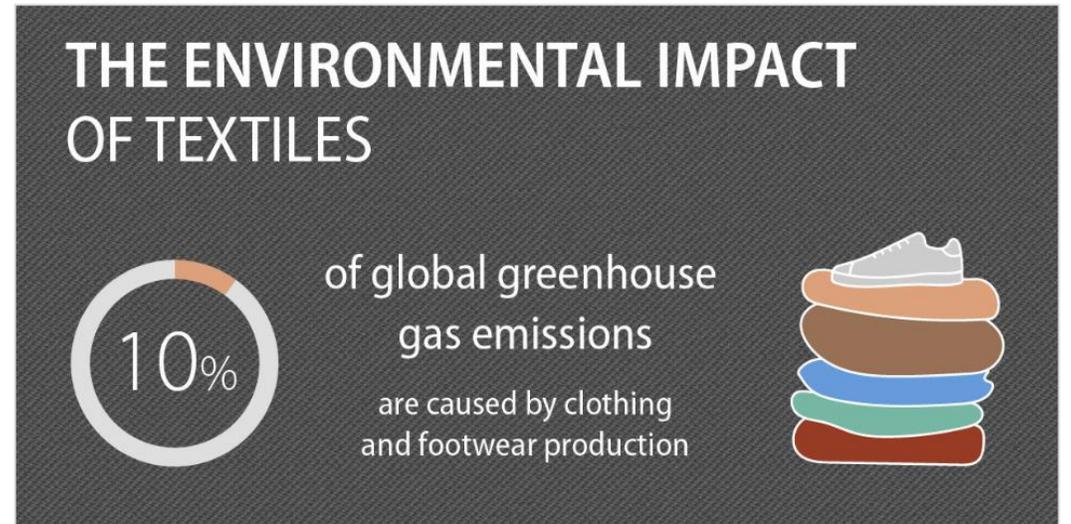
현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플라스틱의 공존

플라스틱과 패션



<패션/섬유 소재 종류별 사용 비율> Textile Exchange 'Preferred Fiber & Materials Market report 2023'

플라스틱 · 온실가스 배출 (산업계 3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패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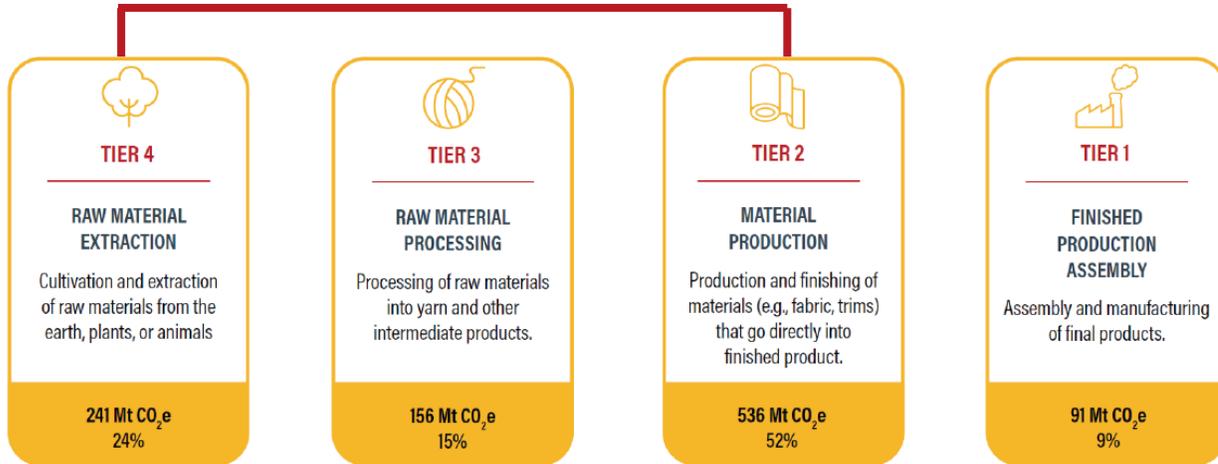


<Suits you - and the planet: Why fashion needs a sustainability revolution> World Economy Forum 2021.Sep. 22

플라스틱과 패션 - 합성섬유(플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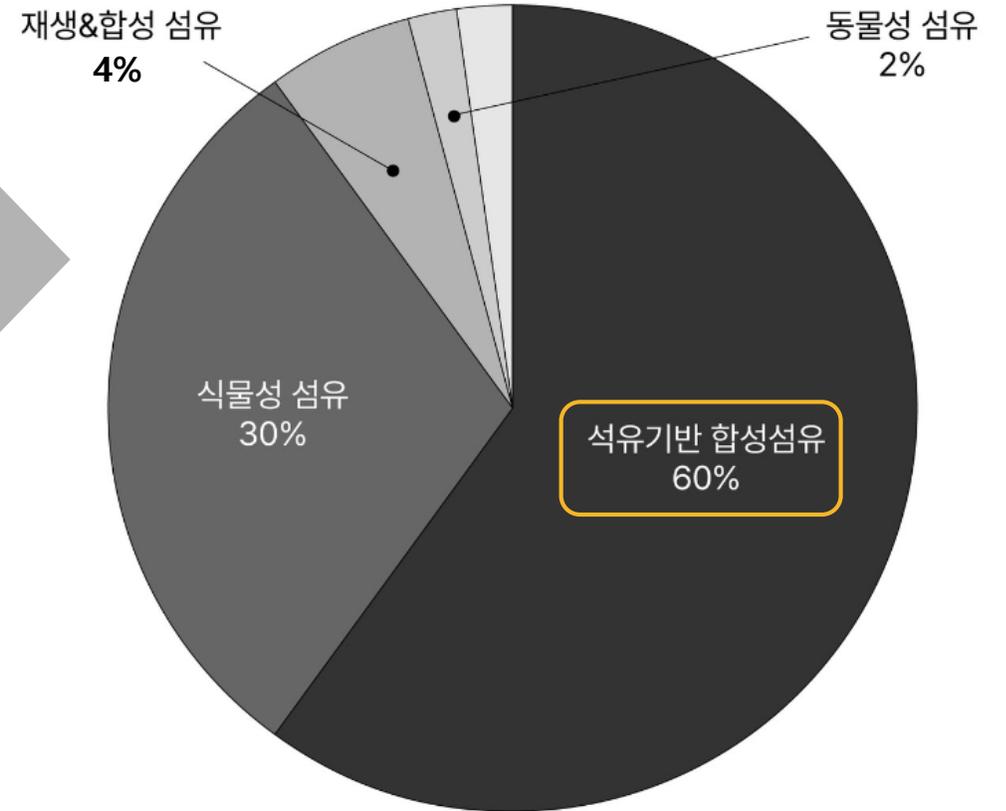
패션 섬유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70%가
소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원자재 생산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



Roadmap to Net Zero: Delivering Science-Based Targets in the Apparel Sector, WRI, 2020

어떤 소재가
탄소 배출이 많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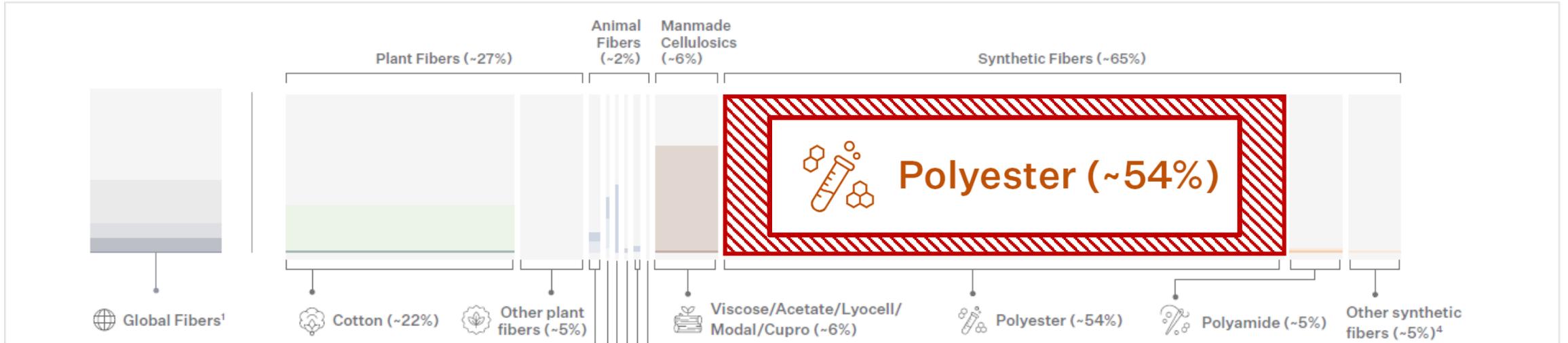


<폴리에스터가 왜 나빠?>, instagram, cqr official

플라스틱과 패션 - 폴리에스터(Polyester)

글로벌 섬유 종류별 사용 비중

<패션/섬유 소재 종류별 사용 비율> Textile Exchange 'Preferred Fiber & Materials Market report 2023'



전체 패션 소재 중 사용량 1위



친환경 폴리에스터 개발 = 환경 영향 개선!

BYN 자원순환체계 영상(PET)
(삽입 예정)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



The use of crude oil in plastic making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Bruno GERVET. 2007.
The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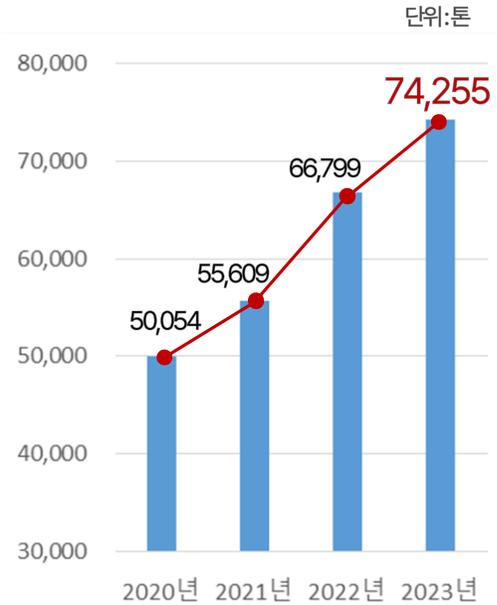
하지만, 해외 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

재활용은 내가 지킨다!!

나는 분리수거 하는데
페 페트병을 사온다고?



의류 섬유용(filament)
재생 PET 연간 수입량



관세청 - 수출입 무역 통계



(다른 나라 살리는)
지속가능한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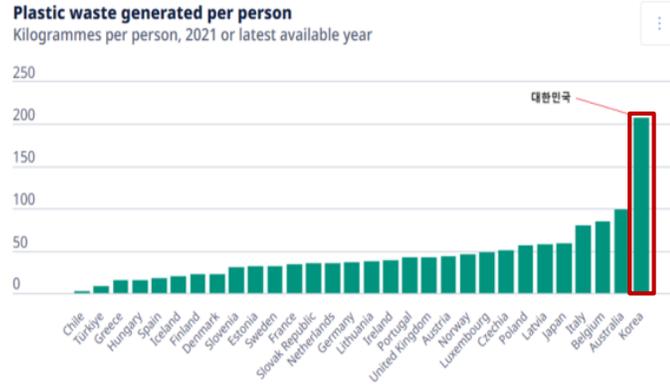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페트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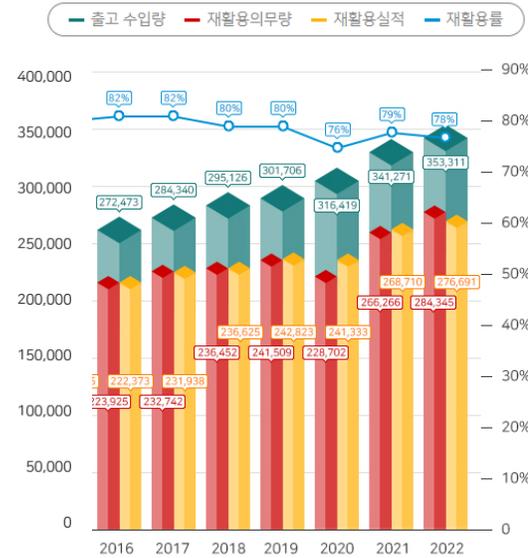
Environment at a Glance Indicators



1인당 연간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대한민국 **OECD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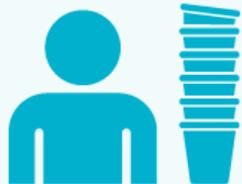


OECD < 한눈에 보는 환경지표 보고서 2024. 6. 28.>



2022년 연간
대한민국 페트병 생산량
약 35만톤, 이중
약 30만톤(85%)은
고품질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

1인당 연간 소비량



	생수 PET병	플라스틱컵	비닐봉투	플라스틱배달용기
1인당 연간 소비 개수	109 개	102 개	533 개	568 개
1인당 연간 소비량 ²⁾	1.6 kg	1.4 kg	10.7 kg	5.3 kg

그린피스 <플라스틱 코리아>. 2023

투명(85%)

유색/복합(15%)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

재활용의 첫 단추 배출 / 수거가 문제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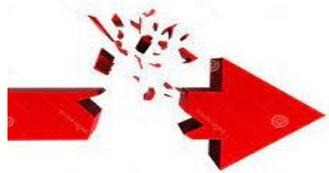


재활용

수거

패션

분리배출 미비, 혼합 수거 문제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운 배출 및 수거 체계

결과 = PET 재생원료 해외 의존



국민

“재활용 되는 거 아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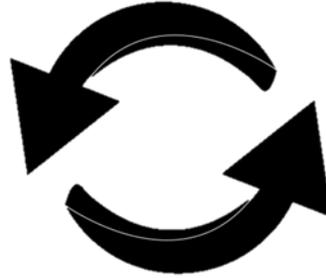
- 제품별 복잡한 재질 구조
- **한 개만 섞어도 전부 오염**
- **교육/인식 부족**
- 재활용 제품 불신



수거 업체

“어차피 가면 다 섞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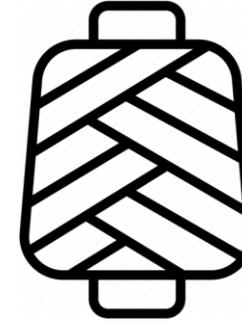
- **별도 수거 방식의 부재**
- 수거에 급급
- 민간업체 위탁이 대부분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재활용 업체

“투자대비 수익이 안돼요”

- **투명 PET 별도설비 없음**
- **설비 투자비용 부담**
- 투명 PET 수요 적음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원사 업체

“한국 rPET는 품질이 안 나와요”

- K-rPET 품질 기준 미달
- 수입 rPET의 품질력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개선 필요를 느끼지 못함



패션 업체

(수입폐기물 줄여주는)
“친환경 패션입니다!”

- **rPET 선택 다양성의 제한**
- 수입 rPET의 가격 경쟁력
- **시장성의 불투명**
- 적극적인 변화 의지 없음

솔루션 #1 - BYN 자원순환 체계 구축 (기업 컨소시엄)



별도수거

"혼합, 오염없는 배송"



재활용 공정

"투명 PET 별도설비 투자했어요."



원사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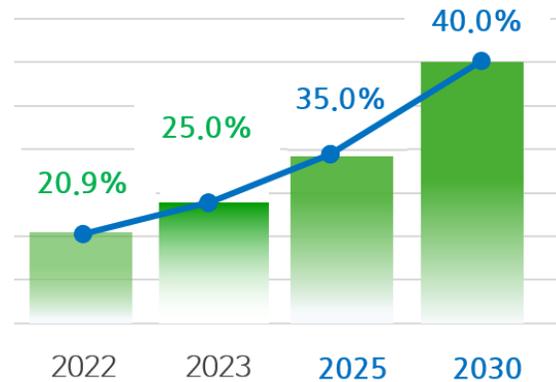
"국내 페트병 재활용 섬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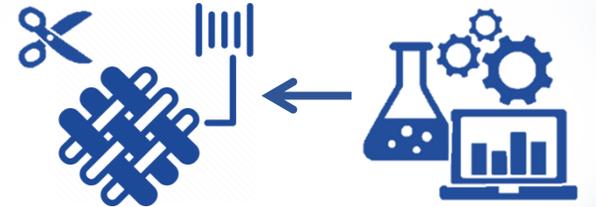
생수 기업

"우리가 직접 회수하자"

BYN MISSION



재활용 제품 군 지속 확대!



R&D + 제직/편직

"아웃도어의 기능을 담습니다."



국내 최초
대한민국
페트병

옷이 되다!



솔루션 #2 - BYN 자원순환 체계 확장 (국민, 지자체)



솔루션 #3 - 자원순환체계의 고도화 (BYN 페트병 파쇄기 활용)



세척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



원사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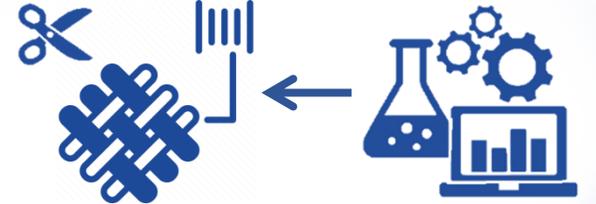
"페트병 재활용 섬유입니다."

투명 페트 파쇄기

- ✓ 투명 페트 선별/압축 단계 생략!
- ✓ 좁은 공간에도 설치, 운영 가능
- ✓ 수집, 압축 단계의 운송비 절약!



시간, 비용 효율성 강화



R&D + 제직/편직

"아웃도어의 가능성을 담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 환경적 성과 (~'24년 6월)

(500ml=15g 기준)

페트병 재활용 약 **7천3백만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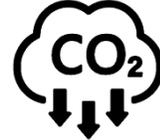
재활용한 페트병을
높이 쌓으면



북극점 ~ 남극점
사이의 거리

(rPET 원사의 LCA data 기준)

탄소 발자국 저감 약 **1,407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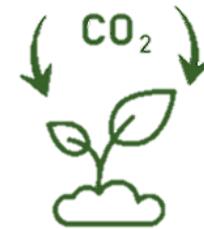
감축시킨
탄소 배출량



승용차 한 대
2천만 km 배출량

(산림청 - 주요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소나무 약 **17.3만 그루**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 1년
간 탄소 흡수량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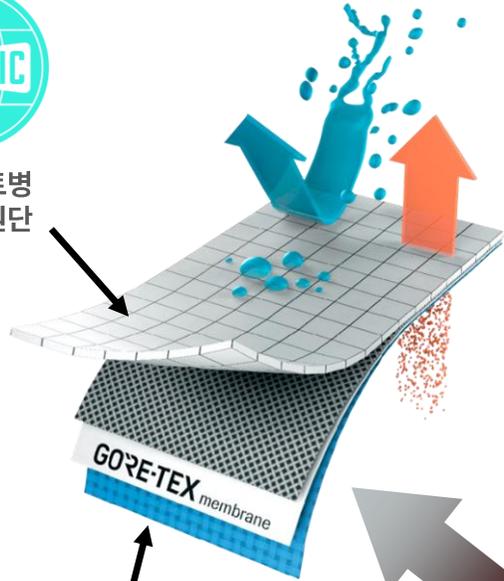
1,730,000배의
탄소 저감 효과

제품의 지속가능성 강화 → 더욱 큰 환경 개선효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 高 기능성 프리미엄 아웃도어



국내 페트병
재활용 원단



국내에서 쓰고 버려진 PET병을
재활용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GORE TEX사와 콜라보하여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섬유입니다.



고어텍스
투습·방수 필름



국내 페트병 재생소재와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결합된
<K-rGORE> 자켓



M트라세GTX자켓#1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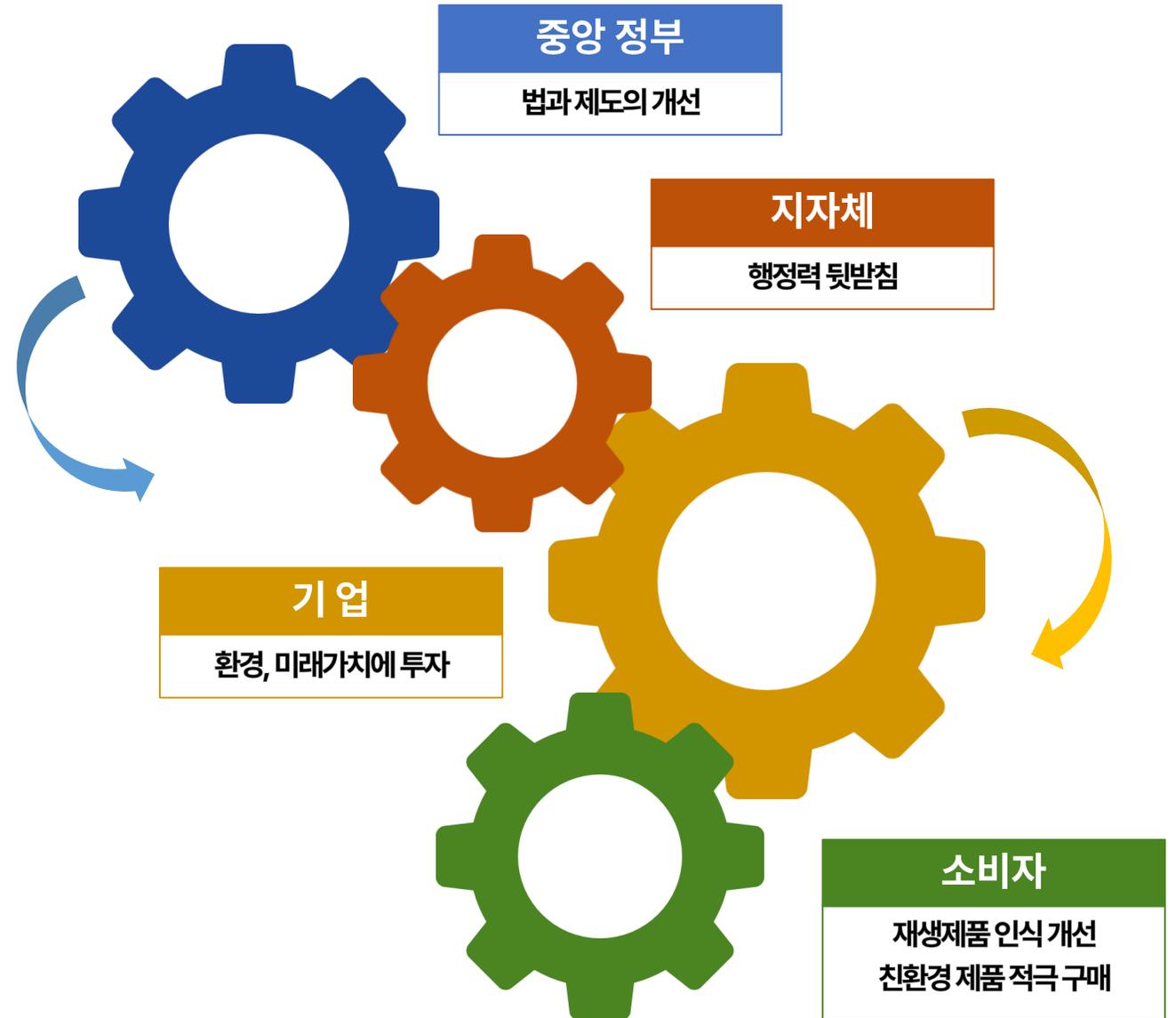
대한민국 페트병 완전독립운동

생활을 위한 제품을 위한 페트병 수입, 이제 막아야 합니다.
100% 우리 페트병으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게 '무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시작합니다.

1. PET병 별도 배출하기
2. PET병 분리하기
3. PET병 파쇄하기
4. 고분말화 및 선별
5. 재활용 제품 생산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과 지자체, 정부와 기업 다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LACKYAK NCU



MOU 및 협업 파트너



- 천안시
- 아산시
- 당진시
- 서산시
- 공주시
- 보령시
- 계룡시
- 논산시



대외 협력 - 사례

공공 영역



환경부

-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영국 글래스고) 초청
- 대한민국 홍보 부스 내 전시 진행
- 탄소 중립 우수 실천 사례로 소개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경찰 피복
- 동일 디자인에 재활용+기능성 소재로 업그레이드
- 스프링 형태의 원사(신축성), 냉감(레이온), 주머니 항균원단 적용



-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컨설팅
- 지자체 페트병을 BYN 자원순환체계로 연결
- 공무원 피복, 지자체 홍보 물품 등 제작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



-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협력 (2022 ~ 지속)
- 국내 폐자원 재활용 소재 참가자 리워드 제작
- BYN 자원순환 체계 & 순환경제 전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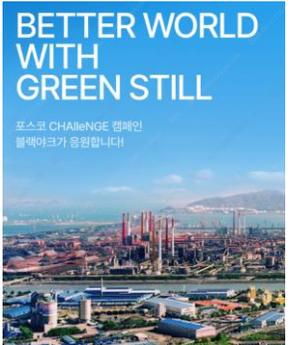
“원더플 피플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 한국 맥도날드 직원 유니폼 (2022 ~ 지속)
- 맥도날드 매장에서 수집된 폐 플라스틱 재활용
- PET 리사이클링 아우터 1벌 당 페트병 41병 재활용



- MOU 통한 분리배출 고도화, 자원순환체계 구축
- PET 재활용 기업 홍보관 방문객 기념품
- 포스코 친환경 캠페인과 연계한 폐쇄물



향후 과제 - 순환 경제 패션 생태계 구축



페트병의 재활용 제품 또한 사용을 마치면 폐기되는 문제

향후 과제 - 순환 경제 패션 생태계 구축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A specific source of growing concern is the **accuracy of green claims made on using recycled plastic polymers in apparel** where these polymers do not come from **fibre-to-fibre recycling**, but in particular from sorted PET bottles. Beyond the risk of misleading consumers, footwear, and in the development of binding product-specific ecodesign requirements. The Commission also encourages businesses to **prioritise their efforts on fibre-to-fibre recycling** and rather make claims on achievements to address this important challenge in closing the loop for textile products.

EU집행위원회 - 지속가능 및 순환형 섬유 전략



섬유~섬유 (Fiber to Fiber) 재활용은 글로벌 트렌드

결론 및 제언



탄소²⁰⁵⁰중립

건강한 지구 되찾기
배출은 줄이고 흡수는 늘리고



衣食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감사합니다.

BASECAMP IN YOUR NEW LIFE, BYN